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2월 13일(주일) 제1078호



사진은 지난해 새벽기도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내일부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1월 23일까지,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내일부터(14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2016년 1월 23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20분부터 6시30분까지 40일 동안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는 각 나라별 시차에 따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주제다.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말씀이 본문이다. 또한 작은예

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한국 교회사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캠퍼스별 특순도 이어진다. 12월 19일 부천 온누리교회, 22일 강동 온누리교회, 26일 수원 온누리교회, 29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1월 2일 대전

온누리교회, 9일 인천 온누리교회, 16일 평택 온누리교회와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특순을 선보인다. 12월 25일과 1월 1일에는 성탄예배와 신년예배가 새벽기도회를 대신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6일)

예배에서 "바벨수룩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삶이 새로워진다"면서 성도들에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 새벽기도회의 새 이름이다. 작은 예수로서 변화되는 40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 8일 앞으로!

14일, 3차 요청자 모임, 12월 29일 후속프로그램 실시

40~50대 남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도집회 비긴어게인은 12월 21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9일 2차 요청자 모임을 갖고,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2차 요청자

모임에서는 이기복 교수가 '부부의 하나됨'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130명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말하기, 남편에게 줄 카드 써오기, 데이트하기 숙제를 내줬다.

내일(14일)은 3차 요청자 모임이 있다. 중보기도와 전도집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들도 참석해 아내들과 함께 중보기도할 예정이다.

12월 29일 낮 12시에는 후속모임이 진행된다. 아내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나눔과 중보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6년 1월 23일 1박2일로 진행되는 '부부학교'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부부학교는 선택과정으로 참석자는 추후 모집할 예정이다.

'비긴어게인'은 2001년 열린 첫 번째 맞춤전도집회 '비상구'의 영광을 재현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처음 열린 맞춤전도집회 '비상구'에는 40대 남성 1천 명이 참석했다. 그중에서 26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284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의: 02-3215-3214

확대 당회

일시: 12월 19일(토) 오전 6시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교역자, 지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공동의회

일시: 12월 20일 양재 사랑홀

주일 2부 예배 후 제직회
대상: 교역자, 제직

주일 3부 예배 후 공동의회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북한 총각과 남한 처녀 부부 되던 날

탈북민 김태웅 형제와 그의 아내 이희 자매

북한에서 온 총각과 남한 처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지난 5일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한터공동체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주인공은 신랑 김태웅 군과 신부 이희 양이다. 그들은 한터공동체에서 처음 만났다. 이희 자매가 탈북민들을 섬기러 한터공동체를 찾았다가 김태웅 형제를 만났다.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두 사람의 나이차가 10살 남짓인데다 문화차이로 생길 갈등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의 힘을 보여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광국 목사의 주례사가 이어졌다. 비로소 그들이 부부가 됐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 온 순간인지 모른다. 나이차 이도, 문화차이도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들이 부부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리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섬겼다. 한터공동체는 예식을, 와이즈마더링은 웨딩데코를 맡았다. 양친공동체 권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다. 한 성도는 드레스를 후원했다. 마치 자신의 결혼식인 것 마냥 도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기다려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결혼예배를 인도한 안광국 목사는 가족들을 데려와 축하까지 불렀다. 안 목사는 “막내 여동생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결혼예배를 준비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안광국 목사와 신부 이희 자매의 인연이 깊다. 그녀는 안 목사가 요셉공동체를 담당할 때 참 열심히 섬겼다.

신뢰 위에 쌓은 사랑

이 좋은 날 신부를 만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치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기까지 자연이 굿금했다. 그들은 2013년 한터공동체에서 처음 만났다. 같은 공동체, 같은 순에 소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당시 이희 자매는 북한에서 온 청년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고 있었는데 김태웅 형제가 그 청년의 친구였다. 당시 김태웅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희 자매는 강서구로 이사를 오면서 한터공동체를 자주 찾았다. 그녀는 북한에서 온 청년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 과외를 해줬다. 자연스럽게 그 청년의 친구인 김태웅 형제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김태웅 형제가 먼저 이희 자매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사귀고 싶다”고 고백한 그 짧은 굵은 메시지에 이희 자매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희 자매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남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결혼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돈독했다.

한결 같은 신랑과 돕는 배필 아내

성실한 신랑은 한결같았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든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에게 아내의 어떤

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남한에 있는 누나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건너오게 됐다. 그는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을 거쳐 남한에 왔다. 그 힘든 탈북과정을 거쳐 온 남한에서 적잖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그의 손을 잡아 준 곳이 바로 한터공동체와 이희 자매다.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

김태웅 형제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 열심히 한국생활에 적응했고, 열심히 일했다.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직장을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의 믿음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정말 멋있다”면서 “그런 남편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 부부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단했던 부모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렇게 혼인신고 18개월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두부국을 끓여주었다. 남편은 두부국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두부가 들어간 국은 매우 귀하다”고 했다. 아내는 아직도 남편에게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소하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배고프고, 어렵게 살았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들도 다들 때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다른 것을 두고 입씨름을 한 적도 있다. 아내는 남편이 아버지 세대와 비슷하다고 하고, 남편은 자유로운 아내의 모습에 놀라곤 한다. 그렇게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이들 부부만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드물다.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이 오늘도 영글어간다. 북한 총각과 남한 처녀와 만나 이룬 가정에서 오늘날도 깨소금 냄새가 난다.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든 이유가 보인다. 그들은 천상 돕는 배필이다.



결혼을 축하하러 온 지인들.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예상은 했지만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의 반대가 마음에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김태웅 형제의 진심이 더 소중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구했다. 하나님이 그를 배우자로 예비하신 것이 느껴졌다. 어려운 상황이었는에도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과 신뢰가 쌓여갔기 때문이다. 그 신뢰가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다. 그들이 신뢰 위에 쌓은 사랑은 바위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결혼식 18개월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다. 그만큼 서

점이 좋냐고 물었다.

“평범한 것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매일 봐도 아름다워요. 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태웅 형제는 남한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한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남한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친다”는 이야기를 자주들어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편견을 깨준 사람이 바로 아내 이희 자매다.

김태웅 형제는 남한에 온 지 올해로 3년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사도행전 7:51~60

“스테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허용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생명을 내걸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고 진실하게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순교기록을 통해서 묵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대신해 그 일을 전담할 일곱 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누스’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가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쓰는 인생을 살라는 소망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헬라문화에서 자란 그가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도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지혜, 은혜가 충만한 스테반

스테반의 이름에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7장 55절에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비이성적이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비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스테반의 성령 충만에 대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지성적인 영역에서의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의지적 충만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뤄지는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불법으로 심문하고, 거짓누명을 씌워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멋있는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성령님이 그의 감정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품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불의하게 거짓 고소를 당한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그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를 열거한 이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증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서 거짓 증인으로 고소당하고, 거짓 죄목으로 판단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짓 증거로 고소받아 심문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담대하게 역사적 진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 받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에게 심문 받을 때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당

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과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 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는 사자같이 담대하셨습니다. 스테반이 고소당한 죄목은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목과 동일합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 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한 것입니다. 스테반도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스테반은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 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주신 시편 66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관에 머무르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 했습니까. 스테반은 성전을 우상시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스테반은 성전을 폄하하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으로 거짓증인을 사서 스테반을 고소했습니다. 스테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시간에 구약의 역사를 관통해 흐르면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읽으면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흐름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의 실체가 오셨으니 더 이상 그것 자체를 우상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스테반은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진실 충만입니다. 진실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의 담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 다”(51~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진실을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진실을 들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테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54절).

그들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둘째,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테반은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감정으로 싸우면 휘말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분노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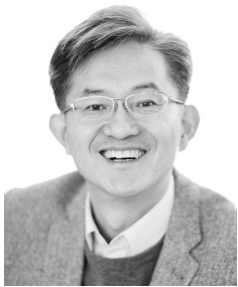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천년 전 이뤄진 성탄, 오늘날에도 큰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고 있어

곧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도 울려 퍼지고 있다. 너나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연인, 친구,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황재명 목사가 복음과 십자가를 주제로 쓴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남A공동체)

학자들은 오늘날을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성도(聖徒)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인생이다. 하나님이 “건너가라”하면 건너가고, “건너오라”하면 건너 온 수많은 믿음의 발자취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 정립과 교회 개척 선구자였던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되었으며(롬 1:1), 그 복음으로 기독교 교인들을 낳았고(고전 4:15),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전 9:16).

그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복음)과 크리스마스의 기원

기원전 5세기경 통일제국을 형성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세 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 속에 뚜렷한 기억을 남긴 전쟁이 바로 2차 전쟁이다. 제1차 정벌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정벌에 나섰다. 아테네 서남부에 위치한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 누구도 막강한 페르시아 군사력(전함 6백 척, 보병 10만 명, 기갑 1만 명)에 대해 그리스가 승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기쁜 승전보를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 전령병이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사건이 마라톤의 기원이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달려온 전령은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전령이 죽어가면서 전한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복음’(good news)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유앙겔리온’(euangelion)이다. 로마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승리, 황태자의 탄생, 세자의 결혼 등 국가적인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그 좋은 소식이 선포된 날에는 축제가 열렸다. 시민들에게 풍성한 선물이 주어졌다.

성경을 보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이스라엘에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과의 전투 결과를 마하나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두 명의 전령이 보내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 두 전령 중에 나중에 출발했지만 앞선 전령을 앞지르고 먼저 마하나임에 달려온 아히마아스(사독의 아들)를 보고 다윗은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읊조렸다(27절).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좋은 소식’ 또는 승전보를 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삼하 4:10, 18:27)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

다. 이런 의미의 ‘유앙겔리온’이 시편이나 예언서 시대에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시 40:9~10, 사 40:9, 41:27, 52:7, 61:1). 시간이 흘러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유대 아이를 통해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옮겨지는 시점에 로마제국은 전 국가적으로 호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에 응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오자 가던 길을 멈추고 베들레헬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 쉴 곳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베들레헬은 이미 빈 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였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단 한 곳 마구간뿐이었다(눅 2:7). 당시 마리아는 산달이 다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마구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날 밤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날 즉, 성탄의 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안에 있었고,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 그날 밤 하나님의 전령들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0~14).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한 유앙겔리온, 그것도 큰 기쁨의 유앙겔리온(good news of great joy)은 유대 아이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구주’라고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구주가 나신 곳이 다윗의 동네(베들레헬)라고 태어난 장소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럼 왜 천사들은 굳이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알려줘야 했을까. 이에 대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하신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다”(행 13:23).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아 예언들이 2천 년전 베들레헬에서 나신 예수를 통해 온전히 실현되었다. 역사에 줄곧 선포되어 온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바로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유앙겔리온이요, 오늘날 Merry Christmas(메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다.

왜 메시아 예언 성취가 큰 기쁨일까?

왜 메시아 예언 성취가 큰 기쁨의 복음일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디서 출생할 것이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예언된 사람이 있었는가?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가, 철학자, 사상가들의 생애를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써놓는 것이 가능한가? 그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실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을 보면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천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미래에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계시된 메시아 예언과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의 생애가 겹쳐지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리 스트로벨 목사는 자신의 저서 <예수는 역사다>에서 이렇게 반론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여덟 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만조분의 1이다.”

이 확률은 미국 텍사스 주(한반도의 세배 넓이) 전체를 은화 동전으로 덮는데,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60cm 높이로 쌓아 덮고, 그 중에서 미리 표시한 단 한 개의 동전을 단 한 번에 정확하게 집어낼 확률이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총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조의 13승분의 1(1/1조³)이라는 거의 측정 불가능한 통계 수치라고 했다.

그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예언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구약성경에는 약 300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들은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두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아 있는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한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승천하셨으며, 언젠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온 우주만물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빌 2:9-11).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우주만물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주’(LORD)라는 진리이며, 이 진리의 선포는 이미 천사들이 전한 유앙겔리온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눅 2:11).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었으며(행 2:36, 롬 10:9),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증거되고 있다.

그럼 천사가 선포하고 성령이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 로마황제가 ‘주’였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유앙겔리온의 선포는 드디어 새로운 나라의 통치질서(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혹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유앙겔리온을 살펴보면 구원론적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단지 ‘구주’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어린아이 예수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암시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유앙겔리온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며 끝을 맺고 있다. 바로 이 찬양, 이천년 전 하늘의 모든 천군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한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계시되고 있다.

계시된 첫 번째 목적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in the highest)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하나님의 천사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오심 속에 나타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 해 봐야할 대목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을 나타내는 유대교적 관용구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은혜 또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큰 기쁨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는(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평화와 나라를 약속. 삼하 7:16, 사 9:6-7, 렘 23:5-6) 단순히 인간 내면의 감정적 상태나 정치사회

모른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건넨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말씀이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평화를 제자들이 누리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다. 당시의 제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냐’는 질문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요한복음 20:21-22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며(빌 1:11, 사 32:17),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궁극적인 응답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빌 4:6-7).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다. 보다 크고 거시적 차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개인적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신앙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런 신앙은 나중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이천년 전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역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에 선포된 복음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고후 4:4)이자 동시에 ‘평화의 복음’(행 10:36)이라 증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사 43:7, 21, 빌 2:11, 고전 6:20, 엡 1:6, 14). 천사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인생의 뜻과 뜻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Happy Holidays 또는 Season’s Greetings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막힘없이 계속 진행형이다. 이천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선포되었던 유앙겔리온은 성탄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진리의 방향성을 망각하고 방황하는 세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다. “Merry Christmas!”



예수 탄생을 그린 영화 ‘네티비티 스토리-위대한 탄생’의 한 장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이다(요 17:1-5).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망각하며 살아왔고,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세상의 바벨탑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 혹은 하나님의 임재(‘쉐키나’의 영광, 출 40:34-35)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신적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 드리는 그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사 11:9, 함 2:14)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육체는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될 것(사 40:5)이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눅 9:31-32)과 부활(롬 6:4, 벧전 1:21), 재림(눅 21:27)을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빌 2:6-11, 눅 24:26).

적인 안정이 아니다. 그보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의 화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롬 5:1-2, 고후 5:18-20).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평화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다. 샬롬은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즉 화목(reconciliation)의 축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사 48:22, 57:21). 참고로 ‘평화’라는 원어를 한글성경에는 네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평강, 평안, 화평, 그리고 평화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했는지는

평택, 10주년 감사예배 및 담당목사 이·취임

김종민 목사 취임, 김소리 목사 이임

김종민 목사가 평택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하고 김소리 목사가 이임했다.

지난 9일 저녁 7시30분 평택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창립 10주년과 담당목사 이·취임을 축하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았다.

김명종 장로의 대표기도로 문을 연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담당목사 이·취임 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담당목사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도 했다. 이날 대표기도를 한 김명종 장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여신 것처럼 평택 온누리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이재훈 담임목사가 ‘공동체의 축복’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용기를 주고, 회복을 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지난 2년 동안 평택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섬긴 김소리 목사는 이임사에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지금처럼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 동안 진심으로 아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평택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한 김종민 목사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포부



김종민 목사와 김소리 목사의 이·취임식에서 이재훈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를 밝혔다.

김종민 목사는 엘바인, 샌디에이고, 포틀랜드, 양재 온누리교회 등을 섬겼다. 김소리 목사는 양재 온누리교회로 사역지를 옮긴다.

기도처소에서 500명 출석하는 교회로

평택 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창립됐다. 24명의 성도들의 기도처소로 시작됐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끝

임없이 성장했다. 성도가 5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성도들의 감회가 남달랐다. 김명종 장로는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창립 10주년이 됐다”고 회상했고, 박서현 자매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평택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은 지정학적으로 이주민 사역에 안성

맞춤인 곳이다.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인천항의 과부화된 물류량을 대체할 수 있는 평택항이 있다. 지난해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약 120만평에 달하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 온누리교회는 국적별 예배와 이주민 사역을 통해 이주민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종민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제가 여섯 살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선교단체 경배와 찬양에서 사역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사역은 정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과 예배, 찬양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부임한지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5년, 미주지역 해외비전교회에서 4년 2개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6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평택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30대에 온누리교회 왔는데 벌써 50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랑, 은혜, 복음 흘려보내는 교회

“저의 소망은 온누리교회 비전에 발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예수 바보행전을 써 내려가고,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평택 온누리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바로 이것이 제가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감당할 사역의 방향입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일 3:18).

이 말씀처럼 행함으로 평택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할 것입니다.

평택은 지금 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0만평 부지에 공장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생

산라인이 들어설 것입니다. 평택 남부지역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택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변화를 앞둔 평택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선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5:18).

무엇보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헌신이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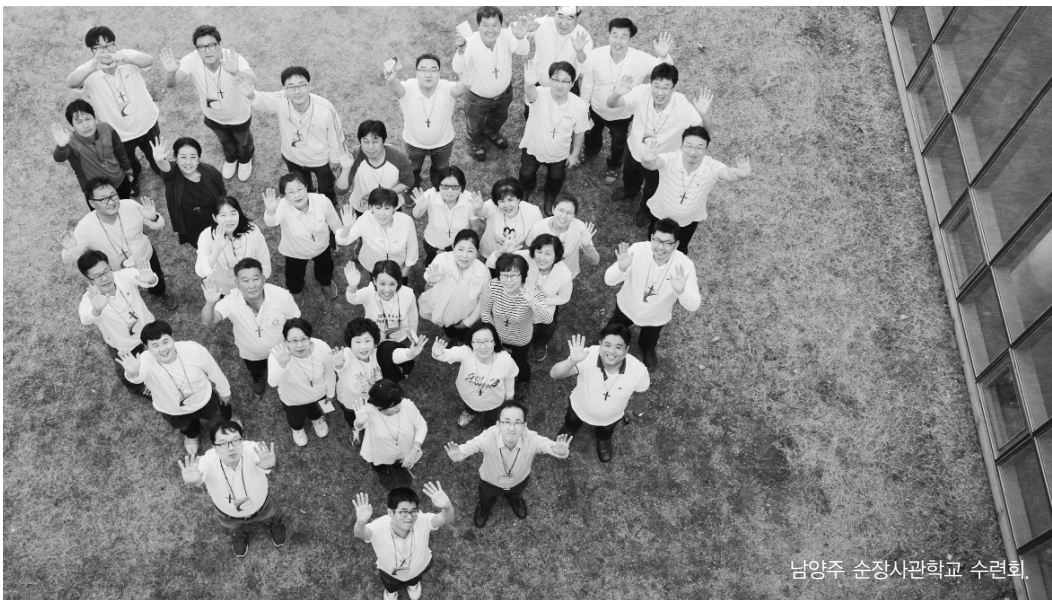
앞으로 평택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헌신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영적부흥과 지역사회 복음화 꿈꾼다

남양주 첫 순장사관학교 종강

35명 수료, “기도하는 순장 되겠다” 다짐

■ 수료 간증



남양주 순장사관학교 수련회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1년만에 처음으로 순장사관학교 수료생을 배출했다. 35명이 수료했다.

2004년 11월, 10개 순 8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11년이 지난 현재 3개 공동체, 10개 다락방, 46개 순으로 부흥했다. 차세대와 청년부까지 더하면 성도가 1,000여 명에 달한다. 창립 때보다 성도가 125배 늘었다. 자연스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더 많은 순장이 필요했다. 그런데 남양주 온누리교회에는 순장사관학교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서빙고나 양재 온누리교회 순장사관학교에 참석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순장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매년 5~6명에 불과했다. 이에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자체적으로 순장사관학교를 열어 성도들의 물리적 불편함을 줄여줬다. 그 첫 열매가 지난 달 29일 맺힌 것이다. 남양주 순장사관학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순모임 인도법, 묵상과 나눔, 순원 상담방법 등 순장이 순모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실제적 스킬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순, 돌봄이 있는 순, 중보기도하는 순 등 바람직한 순에 대해

서도 공부했다. 수련회를 통해 조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었다. 아웃리치도 갔다. 순원들과 아웃리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지에 대한 사전모의고사였다. 장소섭외부터 사역내용과 역할 분담, 사전 답사, 마무리까지 빠짐없이 준비하고 실행했다.

남양주 순장사관학교는 예비순장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다락방이 예비순장을 섬기고, 기도도 맞이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성을 다해 섬겼다. 공동체가 돌아가며 순장사관학교를 섬겼고,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별실에서 기존 순장들과 다락방장들이 중보기도를 했다.

최재혁 순장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귀한 자리를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고, 수료생 오상진 성도는 “섬겨준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술이 아니라 기도가 기본

/ 오상진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엡 6:18).

하나님이 내게 순장사관학교에서 주신 말씀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식장, 집, 살림살이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하기 쉽다. 정작 남편,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한 채 말이다.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순장이라는 직분도 마찬가지다. 순장사관학교는 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 막막해 하던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줬다.

지난해 3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순모임에 참석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설렘을 안고 참석했는데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눈에 띄었다. 낯선 사람과 환경 탓에 설렘이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그런 우리 가족을 순장님과 순모님, 순원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초신자에 가까운 나에게 순장님의 배려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양주 순장사관학교에서 예비순장으로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수련회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순장사관학교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훌륭한 순원이 되는 것이 훌륭한 순장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순장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다. 특히 박윤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강의가 기억에 남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라고 하셨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수준만큼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이 가르침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허물없는 교제의 장이며, 세상의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나의 겉테기를 벗겨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순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적 지식, 순모임을 인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회개기도, 순원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가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회칼럼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순과 순장에 대하여

“저는 순장으로서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잘 감당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순장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부담을 느낄까. 순장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섬길 수 있는 직분일까? 순장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 순장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

순장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바라봄의 법칙’이다. 순(荀)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나 풀의 줄기세포에서 새로 돌아온 연한 싹’이다. 이 연한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가지나 큰 줄기가 된다. 나무는 뿌리에서 가지 끝으로 양분을 빨아들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이때 연한 순은 어떤 역할을 할까? 더 많은 태양빛을 흡

수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뿌리에서부터 부지런히 양분을 빨아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한 순은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양분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순의 역할이고, 순 성장의 비결이다.

순장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 순장의 역할은 나뭇가지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햇빛을 흡수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공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순장이다. 순장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수용의 법칙이다. 어린 순이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야 물과 양분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땅 속에 박혀있는 돌덩어리들이다. 돌이 크고 단단할수록 뿌리내리기가 어렵다.

순장은 걸림돌을 없애려 하기보다 감싸줘야 한다. 걸림돌을 감싸려면 연한 뿌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나면 다른 나무들보다 튼튼하게 설 수 있다. 뿌리 밑에 있는 거대한 돌덩이가 폭풍우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흔들리거나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어진다. 우리 안에도 큰 돌덩어리들이 있다. 그것이 내면의 상처일 수 있고, 직면하기 싫은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견고함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셋째, 재생산의 법칙이다. 싹을 틔우고, 지속적으로 어린 싹을 내는 것은 생명의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자연

의 원리다. 씨앗이나 열매로 또 다른 방법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만약 앞만 무성하다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와이에선 독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나무가 있다. 가지가 땅으로 자라는 나무이다. 가지가 땅에 닿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 땅이 있는 한 끝없이 펼쳐진다. 그 나무는 어지간한 집 두세 채 이상의 크기로 자라는 것이 흔하다고 한다. 이렇게 성장한 나무에는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회복을 선물하게 된다.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가져오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이뤄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

프로 댄스스포츠 선수 최송화의 두 번째 꿈

4분의 3박자 경쾌한 음악에 맞춰 남녀가 한 쌍이 되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다. 왈츠다. 왈츠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축하할 때 추는 춤이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낭만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춤이다. 왈츠는 언제 듣고, 봐도 곱스럽다.

여기 댄스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매가 있다. 주인공은 길공동체 최송화 자매다. 그녀는 프로 댄스스포츠 선수다. 한눈에 봐도 화려한 춤사위가 남다르다. 댄스스포츠와 복음의 만남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경험하면 중독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녀가 댄스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사연이 애절하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전국 프로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최송화 자매.

댄스스포츠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와 스탠다드 댄스로 구분된다. 그녀는 스탠다드 댄스 선수다. 과거에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를 했지만 최근에 종목을 바꿨다. 타고난 재주와 자신감이 그녀를 프로 댄스스포츠 선수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그녀는 벌써 16년차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수다.

갑자기 찾아 온 일생일대 위기

그녀는 경상남도 통영 출신이다. 세 살 때부터 춤을 쳤다. 춤을 빼놓고서는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다. 감춰진 그녀의 재능이 15살에 빛을 발했다. 한 전문지도자로부터 댄스스포츠 선수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때부터 통영에서 서울까지 원정 레슨을 받으러 다녔다. 무료로 레슨을 받았고 주니어, 고등부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승승장구했다.

“저는 뭐든지 하면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학교 성적도 좋았거든요.”

그녀는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체육대학교를 다니며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내 라틴 댄스 분야에서 최고가 됐다고 자부했다. 그녀는 몸을 풀 때도 정

식 파트너와 호흡을 맞췄다. 댄스스포츠 선수에게 파트너는 생명과 같다. 그만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최상의 파트너와 연습을 했다. 그만큼 댄스스포츠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파트너와 2달 동안 연습하고 대회에 나갔다. 그런데 무리한 출전 때문인지 발목에 이상이 생겼다. 병원에서 ‘발목만성불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해 발목이 헛도는 현상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하더라도 운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판정했다.

어떻게든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열심히 보조기를 착용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집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무 살 때부터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다. 정말 독하게 생활하면서 춤을 쳤다. 그만큼 춤이 좋았다. 그런 그녀에게 발목 부상은 좌절 이상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다. 위기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입을 얻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쉽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말 그대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다.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 없다”

그녀에게 비상구가 필요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잦은 대회 출전으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릴 수 없었다. 대부분의 대회가 주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사촌 언니를 따라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를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그녀를 예수님이 가만 돌리셨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 ‘The One’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체험적 신앙에 치우쳐있던 그녀였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

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당장 뭐하지? 뭐 먹고 살아야 하지?”를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난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녀가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 없다”고 당차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생활도 달라졌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가 달라졌다. 공동체 활동은 물론 중보기도도 열심히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당시 최송화 자매는 대학원에 다니느라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서 간호를 해야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다. 길공동체 지체들이었다. 그녀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아버지 건강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공동체 지체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됐다. 의사조차 놀랄 정도였다.

기도의 힘을 묵도한 그녀의 삶이 또 한번 달라졌다. 직설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모습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활도 달라졌고, 성격도 변했다. 예수님이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이들이 보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군선교 사역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사역 또한 그녀를 변화시키는데 한

몫했다.

“댄스스포츠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치유집회에 참석한 그녀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마지막 무대에서 제가 좋아하는 춤을 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발목의 고통이 물로 씻은 듯 사라졌다. 아픈 발목이 나은 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무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인을 통해 댄스스포츠 선수로 스카우트를 받았다.

어느 날 제자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2013년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3(Dancing with the stars)’ 댄서 오디션을 통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각계 명사들이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선수들과 팀을 이뤄 춤을 추고, 매주 한 팀씩 탈락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농구선수 우지원과 파트너가 되었다. 더 이상 춤을 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큰 무대에서 춤을 출 기회가 찾아왔다.

KPDC(댄스스포츠경기연맹) 대회에도 출전해 4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아시아에서 권위 있는 대회에 출전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녀가 무릎 꿇었다.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댄스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6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개혁신앙을 찾아가는 여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단체여행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지만,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것과 시간에 쫓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행을 하다보면 더 머물고 싶은 곳과 더 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 찻집이 광장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시장이나 상점을 둘러보며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느껴보는 것이 여행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루터의 도시들은 바로 이런 방식의 여행에 적합하다. 여행의 무대를 라이프치히에서 비텐베르크(Wittenberg)로 옮겨가 보자.

마틴 루터(1483~1546)는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임종했다. 그는 광부였던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 18세에 에프르트(Erfurt)대학 법학과에 들어가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자 성직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다. 1505년에 안수 받고 사제가 되었다. 그 후 로마 계단성당을 방문해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행을 했지만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

해서 죄 사함과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508년에는 비텐베르크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학박사가 되었다.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도시다. 작고 아담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개혁신앙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루터하우스를 방문해 보자. 루터하우스는 루터와 관련된 원본자료 1,000여 점에 있는 박물관이다. 이곳이 종교개혁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집은 원래 수도원이었는데, 프레드리히 대제가 루터에게 제공해 줘 35년 동안 생활했다. 그의 부인(Katharina von Bora)은 대학생 하숙을 치면서 생계를 이었다. 루터는 이 집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했고, 95개 조항 반박문을 작성하였다.

루터하우스에는 꼭 봐야 할 것이 많다. 먼저 그림을 주목해 보라.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인물 중 하나로 루터를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었던 프레드리히 대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500년 전 사람의 얼굴에서 현자다운 품위가 느껴진다. 루터가 수도사 복장을 하고 박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 루터 부부, 노년의 루터, 루터의 임종 때 얼굴이 잘 그려져 있다. 또 95개 조항을 예배당 문에 붙이는 그림도 감동을 준다. 루터의 흔적들이 그림으로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프레드리히 대제가 궁중의 화가로 임명했던 루카스 크라나크(Lucas Cranach) 덕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당시 가톨릭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면죄금고다. 1517년 10월 31일 성안교회 대문에 내걸었던 95개 조항 문서가 있다. 수도원 식당으로 쓰였던 곳에는 크라나크가 그림으로 표현한 십계명 화판이 걸려있다. 루터가 입고 설교하던 수도사 옷, 1524년 인쇄된 개신교 최초 찬송가,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로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가다



▲ 비텐베르크 루터하우스에 전시돼 있는 루터의 원서들.

번역 출판한 신약성경 원본과 2년 뒤 완성한 구약성경 원본이 있다. 루터가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은 개혁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다. 성경이 있어도 자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다. 읽을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이었으니 중세교회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러 도시에 세워진 루터의 동상을 보면 왼손으로 성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펼쳐진 성경을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오직 성경 중심이 참된 개혁신앙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되는 날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세속화된

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비텐베르크시의 공동금고다. 이것은 루터의 개혁신앙이 단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분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금고에는 교회, 당국, 시민대표 등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3개의 자물쇠가 있다. 헌금은 목회자의 사례비와 교회관리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복지비로 사용되었다.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사용되었다. 교회개혁이 사회개혁으로까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다. 개혁신앙이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돌봐주는 것이다. 성경적 경건 혹은 영성은 세상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채기석 목사(서빙고 중동3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10권 중에 성경이 1위를 차지한다. 무려 39억 권이나 판매됐다. 10위권에 든 책들의 판매기록을 모두 합한 것보다 판매부수가 많다.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읽혀졌을까.

성경은 약 2천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된다. 공저한 저서는 저자들의 견해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2천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살던 40여 명의 저자들

이 쓴 성경의 주제는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 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문서적, 과학서적, 예술서적도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눅 2:52).

내가 담당하는 중학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한두 가지 고충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키는 성장하지만, 성경적 지혜는 정체되고 있다. 중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 다음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명의 목회자로서 나는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주어진 명백한 명령이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부모이자 교사인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가 문제다.

자녀들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구연동화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자신, 부모와 자신, 형제와 자신, 학교친구와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한다. 성경본문 해석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책임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크리스천 부모의 의무와 책임

IT기술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탈북민 위한 홈페이지 개설

IT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다. 강남B공동체 이승애 안수집사는 내일(1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선물’이라는 이모티콘(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에 출시한다. 이 집사는 지난 4월에도 ‘은혜로운 당신을 위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썹카카오가 먼저 이 집사에게 이모티콘 제작을 제안할 정도로 이 분야 실력자다. 이승애 안수집사는 “기독교 문화선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터를 섬기고 있는 박대현 성도는 탈북민들을 위한 홈페이지 ‘우리온’을 개설했다. 탈북민인 박대현 성도는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탈북민을 위한 홈페이지 ‘우리온’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탈북민을 위한 홈페이지 우리온에서는 40여 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



지난 4월 출시된 이모티콘(위)과 탈북민을 위한 홈페이지 ‘우리온(아래)’.

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에서 ‘우리온’을 검색하

면 이용할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12월 특별한 전도행사 풍성

자장면 전도집회, 소외된 이웃 찾아가기 등

12월 특별한 전도행사가 이어진다. 전도지역본부 군선교사역팀 강찬석 장로는 12월 27일 몇몇 장로 부부와 함께 ‘자장면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전도집회에는 장병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장면 값은 장로들이 전액 후원한다.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11월 비전헌금으로 연탄과 쌀을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은 12월 15일과 29일에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 요양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말씀과 기도로 위로할 예정이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12월 16일 CCM 가수 나무엔을 초청해 여성사역 전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동전도팀과 대학청년부는 12월 24일 나비 쇼핑몰에서 노방전도를 할 계획이다. 성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O Holy Night’를 기획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12월 26일 구리여고 앞 ‘더 숲 카페’에서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을 주제로 맞춤형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은 12월 18일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스키를 배우고 있다.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

대청, 다문화가정 ‘윈터캠프’ 개최

대학청년부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지난 5일과 6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대학청년부는 윈터캠프에 참석한 133명의 참석자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스키 강습, 부모들의 휴식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해근 목사(나섬교회)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를 주제로 설교하며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시간과 세족식도 이어졌다. 너나할 것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윈터캠프 참석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미림 기자

교회 위해 기도하는 ‘모세기도방’

1년 365일 쉬지 않고 중보기도 이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다. ‘모세기도방’ 중보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평일에는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주일에는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중보기도

하고 있다. 모세중보기도방에서는 전문 훈련을 받은 중보기도자들이 성도들이 접수한 중보기도카드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 90여 명의 인원이 1~2시간씩 돌아가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

조호영 목사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모세기도방을 통해 중보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려면 서빙고 분당 올라가는 계단, 교회 카페, 모세중보기도실 앞에 비치된 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60회 성령수련회 종료

제60회 성령수련회를 마쳤다. 지난 달 21일부터 1박2일 동안 파주제자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성령수련회에는 74명의 성도가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뿐 아니라 천호제일교회, 부산수영로교회 등 타교회 성도 10여 명도 참가했다.

천호제일교회는 일대일대외사역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을 전수받고 성령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성령수련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영성 프로그램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자리다. 1년에 4회(4월, 6월, 9월, 11월) 개최되고 있다.

문의: 전선아 간사 02-3215-366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6년 상반기 공동체 주차봉사 시간 및 지역 (2016년 1월 10일~7월 3일)

동작(교회후문) 한솔주차장	금강병원 반도아파트	강북삼거리 신동아 주차장	교회정문 교차로 횡단보도
김포 6:00~9:00	-	-	-
서대문 9:00~12:00	관악금천 8:00~11:00	노원 8:00~11:00	가정사역 8:00~11:00
이촌 12:00~15:00	일산 11:00~14:00	북누리 11:00~14:00	성동광진 11:00~14:00
강촌 15:00~18:00	-	-	강서 14:00~17:00
동대문중앙 18:00~21:00	-	-	성북 17:00~20:00

*모든 공동체 봉사자는 주차사역팀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인원은 10명 이상, 총무와 다락방장 이상 책임자 1명 필히 선임해 주세요.

*시간과 인원은 철저히 지킬 것(봉사 중 지역 이탈금지, 시간 엄수).

NGO ‘더멋진세상’ 창립 5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린 NGO ‘더멋진세상’ 창립 5주년 감사예배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이재훈 목사

는 “NGO 더멋진세상이 20여 개국에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지구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CGNTV 다큐 ‘MK의 고백’ 특별상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선교부문

CGNTV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처음 만나는 MK 이야기)’이 제7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선교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MK의 고백’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의 속마음과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26677명이고, 선교사 자녀가 18442명에 이르는데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 ‘MK’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

고 있었다. 이에 CGNTV는 M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MK의 고백’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MK의 고백’은 한국 교계 방송 최초로 선교사 자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선교지와 교계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 7회를 맞이한 한국기독교언론대상은 공평과 정의, 나눔과 생명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을 추천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MK의 고백 다시보기: www.cgntv.net

■ 성령수련회를 다녀와서



/ 박은경 성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제일 쉽고 흔해 보였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땀 청년이다. 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성령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 다만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 세상의 자녀에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원하는 욕심으로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에 분노했다. 밖으로 향하던 화살이 결국 나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그렇게 아픈 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다.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재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면 될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더 많이 아팠다.

주저하며 돌아온 나를 예수님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가르쳐주셨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짓말쟁이다. 실패자다. 너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사실 나는 성령수련회에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성령수련회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성령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나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적어도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

1박2일 동안 1년 이상 훈련받은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정말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다. 특히 같은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미 오래전에 만난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성령수련회를 마치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정선 집사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사람들은 맛있는 식당에 다녀오면 지인들에게 그 집을 소개하면서 꼭 가서 먹어보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첫 조별모임에서 조장님과 부조장님이 전도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조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우리 조는 첫날부터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서로 중보기도하며 격려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갔다. 조장님은 항상 밝게 웃으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셨다. 조장님은 늘 전도지와 선물들로 넘쳐나는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셨다. 복음전도에 앞장서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다. 부조장님께도 배울 점이 많았다. 부조장님의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는 전도자의 본을 보여주셨다. 여든 나이에도 항상 준비된 자세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내게 큰 도전을 주셨다.

전도전문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로 시작된다. 사람의 환경과 성향에 맞춰 접촉점을 찾

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나는 전도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새롭게 새겨졌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용산역, 병원 등지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했다. A4용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복음을 전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전도대상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노방전도 실습을 하면서 세상이 복음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복음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전도학교 필독서 <영혼을 살리는 의사>에 보면 세상에는 누군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쓰여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 CGNTV ‘여성선교사 다큐’ 감상평



CGNTV

/ 함OO(OSOM 훈련생)

일어나 함께 가자!

130여 년 전 황폐한 조선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여성 선교사들을 통해 가장 낮고, 이름도 없는 조선에 찾아오셨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파하며 슬픔을 경험하셨다. 그들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셨다.

여성 선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은 130년을 뛰어 넘어 ‘일어나 함께 가자’며 나를 깨웠다. 나는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여성 선교사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는 아이들이 아플 때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힘든데,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으로 자녀를 잃는 경우도 많았다. 소중한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만약 선교지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잃으면 그곳에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 대답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여성 선교사들의 이러한 아픔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조선 여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

깊이 다가왔다.

로제타 홀은 김점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아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에 김점동은 “언니가 가는 곳이면 나를 데려가 둬주세요”라고 고백했다. 로제타 홀의 사랑이 김점동에게 전해졌다.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 김점동은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로제타 홀이 김점동을 꿈꾸게 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한 여성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이 조선 여성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었던 여성 선교사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 ‘나는 어떤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삶과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보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한다. 제2의 김점동과 여메레 같은 제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주는 꿈을 꾸고 있다.

■ ‘블레싱 제주’ 집회를 마치고



/ 동주연 자매(SNS공동체)

다윗처럼 담대하게

‘블레싱 제주(Blessing Jeju)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겨울 ODO(One Day Outreach)를 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여름 방문했던 ‘즐거운교회’를 다시 찾았다. 이 교회는 감굴농장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블레싱 제주 집회 하루 전에 제주도 도착했다. 우박과 비바람, 눈보라가 우리를 맞이했다. 제주 기독교아리 종강예배에서 ‘블레싱 제주 집회’를 홍보했다. 우리는 즐거운교회에서 잠을 청하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집회 준비를 하며 팀원들 모두 주님만 바라봤다. 곳은 날씨에도 계속 블레싱 제주 집회를 홍보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를 오해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제주의 날씨처럼 차갑고, 냉혹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담대함과 기쁨으로 전도했다.

예배 시작 20분 전, 집회장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350명 이상의 차세대, 권사님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50명이 넘게 왔다. 결국에는 집회장 자리가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예배와 메시지, 게스트들의 간증까지 어느 것 하나 빠놓지 않고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집회에 쏟아진 은혜와 감동을 나눴다. 김승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목상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서야한다”고 나눴다. 즐거운교회로 돌아와 팀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을 맞았다.

4시간 자고 일어나 감굴농장으로 향했다. 도시를 떠난 우리를 새소리와 따뜻한 햇살이 반겨주었다. 수확의 기쁨이 정말 컸다. 즐거운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서 이 감굴농장에 대한 사연을 듣고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로 맺은 열매들을 지금의 한국교회와 청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 시대 청년들이 그 기도 열기를 이어받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최주관 장로(성북공동체)

진정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

7~8년 정도 인도네시아로 매해 아웃리치를 갔었다. 아웃리치를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친밀감도 느끼게 되었다.

나는 2010년 12월 25일 장로로 장립 받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기(두손회) 장로들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다. 장로로 장립 받은 며칠 뒤 인도네시아로 떠났기 때문이다. 현지에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고열과 통증을 수반한 맹기열에 걸렸다. 아내와 나는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다.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자카르타와 반둥에 머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전문인사역을 준비했다. 아내와 함께 기독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선교지에 머물렀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다. 그 나라 행정상의 문제와 경비 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결국 3년 만에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크고, 눈을 찢고 찾아봐도 내 안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훈련받지 않고 나가서 그런지 미숙한 점이 정말 많았다.

“흠 없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본국에 있는 것이 낫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과 구별되며, 진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과 믿음이 진정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금인지 지푸라기인지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공동체와 목요선교집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너무 멀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제2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 성북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목요선교집회를 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온누리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 한결씩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 물질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늦었지만 허락하신다면 훈련을 받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싶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권사칼럼 박인숙 권사(온누리전도학교)

행복한 왕자와 행복한 제비

동화에 나오는 ‘행복한 왕자’는 바보왕자다. 가만히 있었으면 행복한 왕자로 남았을 텐데 말이다. 그는 남들이 행복한 왕자라고 불러줘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왕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안쓰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의 일부분을 떼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어느 날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동상에서 하룻밤 머무르게 됐다. 그 밤에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맞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왕자의 간청을 못 이긴 제비는 왕자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석을 전해주는 심부름을 했다. 한번만 해 주고 떠나겠다고 제비는 심부름을 하면서 묘미를 느꼈다. 병들어 죽어가는 소녀가 눈을 반짝이고, 굶어 죽을 사람이 살아나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웃음과 희망을 찾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왕자의 모습이 점점 흉측하고 바보스럽게 변해갔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날아갈 생각을 미루는 제비도 점점 바보 제비가 되어갔다. 결국 왕자의 심장이 깨져 박살나던 날 제비도 같이 동사하고 만다.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가 불행한 왕자로

제비는 불쌍한 제비가 됐으며 혀를 찼지만 그때 비로소 왕자는 행복한 왕자로, 제비는 행복한 제비로 거듭났다.

‘예수바보행전’이 선포 됐을 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가 떠올랐다. 크리스천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전도는 밤중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석(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전도는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보거나 하셨어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믿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는가. 삶과 더불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반드시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바보 제비 덕분에 진정으로 행복한 왕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전도자를 통해 전해진다.

전도는 예수님의 심부름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만의 특권이다.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예수 바보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예수 바보들이여!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키워 몸을 만들듯이 훈련을 통해 전도근육을 만들어 보자.”



신앙에세이 이정엽 목사(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공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

비교는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걸림돌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ystem, 사회관계망 네트워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8억 명이라고 한다. 친구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목표한 숫자가 넘어가면 옛것을 닫고 새것을 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관계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다.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한 사회심리학 논문이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불행을 느낀다고 한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남기는 글 대부분은 자신이 잘한 내용인데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란단다. 한 교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와 또래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척도가 정해지기도 한다.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가장 잘난 모습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읽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유하게 지으셨다. 창세기 1~2장에서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과 ‘온갖’이라는 말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다. 하나님은 무리로 인간을 지으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가정에서부터 한명씩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60억이 훌쩍 넘는 세계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같은 부모 밑에서 동일한 유전인자를 나눠가진 형제자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다른 존재들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비교해서 줄 세우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자신이 가진 장점과 남의 단점을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감이나, 자신이 가진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해서 느끼는 열등감은 비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누구나 남에게 없는 특징이 있다. 남보다 약한 부분도 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강해 보여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비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사고가, 죄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몸줄 버릇이다.

목회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종종 우쭐거리던 순간이 있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맡으면 내가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목사가 쓴 <마른 뼈도

살 수 있다>는 책을 보며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의 비법을 따라 더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 더 큰 성공신화를 이루고픈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비교의 거품이 사라진 뒤 나는 목회가 성과가 아니라 목적임을 배웠다. 나는 목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목회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1A에서 목회를 한지 6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5년이 쓴살 같이 지나간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르심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몸부림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이건, 디아스포라로서 비전교회를 섬기건, 고국에서 본부를 지키건 간에 각자의 부르심을 이룬다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어디 있겠는가?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비교의 요소보다 고유한 부르심에 집중하면 좋겠다.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나의 섬김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삶을 응원한다. 성공한 인생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스테반은 분노하는 이들과 똑같이 인간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며 자신을 조롱하고, 분노하는 이들에게 인간적인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때는 영광의 때입니다. 죽음이 수치스러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분노하고, 거짓과 불의에 사로잡혀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심판자로, 때로는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셋째, 이를 갈고, 분노하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59~60절).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테반도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스테반도 자신을 돌로 치며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과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용서하는 기도가 열매 맺은 것입니다. 스테반의 중보기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58절).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법적인 절차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놓아야 증거가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 놓은 사람은 무엇인가 주도적인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 행동대원 같은 역할을 했다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적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왜 사

울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용서하는 스테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그의 삶속에 늘 기억되는 사건이 바로 스테반의 순교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테반의 순교와 원수를 용서하는 중보기도의 열매가 사도 바울의 회심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중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스테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역사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AD 107년 로마 제국에서 순교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일곱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밀알이요.”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스테반 집사님과 이그나티우스가 있었다면 한국교회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5. 세상의 법칙



손기철 장로(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세상은 오랫동안 다윈의 진화론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기초한 패러다임으로 묶여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유전학(epigenetics)이나, 양자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지식과 세상과 우주를 보여준다.

1859년, 다윈이 한 생명체의 형질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유전 물질이 있다는 것과 유전물질은 양육강식과 자연도태를 거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1953년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냈다. 곧이어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의 삶을 작동시키는 단백질 합성에 대해 알아냈다. 그 후 생명유지의 핵심교리(central dogma)라고 명명했다. 다윈의 진화론과 유전자 결정론은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해오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염색체 내에 있는 모든 유전자 코드를 밝히기 위해 애썼다. 1990년 시작된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국제적 연합 연구를 통해 2003년에 마쳤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신비를 풀겠다고 야심차게 시작됐고, 모든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의문을 남겼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유전자가 120,000개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과는 달리 25,000개 정도였고, 초파리 유전자의 두 배 정도, 쥐의 유전자와는 95%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론

쥐와 인간의 차이는 단지 유전자 차이뿐일까? 이것을 계기로 주류 패러다임에 이단시 치부된 수많은 연구결과가 재조명 받게 되었다. 인간을 단지 물질적 관점에서 보던 시각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됐다. 이제는 유전자보다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조절장치(DNA의 비유전자 부분들)와 환경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질과 비물질은 절대 통할 수 없다고 믿던 ‘심신이원론’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비물질)이 육체와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차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자의 결과로 나온 새 학문이 후생 유전학, 후자에 대해 의학 및 생명과학에서는 상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가 진행될수록 DNA유전자는 진화로 설명할 수 없고,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양자물리학은 새로운 세상을 말해준다.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으로 이뤄진다고 말한다. 원자 아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다른 세계라고 말해준다. 양자물리학은 온 우주가 비국소성(non-local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준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피

조세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힐끗 보기 시작한 것 같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과 원인을 찾는 연구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원부터 천지만물을 지은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 뿐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바뀌갈 수 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혀 늘 환경을 탓하고 산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좋은 부모를 두지 못해서, 잘 생기지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문제는 없지만 부모의 유전자, 사회제도, 환경 문제를 탓한다. 그러나 첨단과학은 진화론이나 유전자 결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물질세계의 법칙들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도리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만물에 나타나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론은 세상적인 법칙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묶여 사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다.